

국내 최초, 무균 충전 시스템 가동 아셉시스(Asepsys) 브랜드로 OEM 제품에 마케팅 개념 도입



송창우

(주)효성 패키징PU 마케팅 팀장

국내 최대 페트병 제조 업체인 효성이 국내 최초로 무균 충전 시스템을 가동하고 OEM 방식의 음료 충전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난 1979년 국내 최초로 페트병 사업을 시작한 (주)효성은 캔이나 유리병이 식품 포장의 전부였던 당시, 페트병을 들여온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페트병을 개발하며 발전해 왔다.

효성은 올해 2월 충북과 무균 충전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달 1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자 송창우 팀장에게 무균 충전설비에 대한 소개와 기대 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상온 무균 충전 설비는 상온에서 완전 무균화된 환경에서 내용물을 주입함으로써 미생물을 원천 제거하는 충전 방식으로, 현재 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온 살균 방식의 진화이다.

상온 무균 충전기술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차(茶)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일본은 물론,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설비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균 충전 설비가 갖고 있는 시장성과 매력 때문에 지난 10년간 검토해보지 않은 음료업체가 없었던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초기투자비용 및 신기술 전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느 업체에서도 설비투자를 진행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였다.

“업계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균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쉽지 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최종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 설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송창우 팀장은 무균 충전 시스템은 국내 최고의 페트병 제조업체인 효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단언한다.

그동안 국내 음료업체들은 수요대비 투자비의 부담으로 무균 충전 설비도입을 망설여 왔으나, 효성이 이번에 무균 충전 설비를 갖추게 되면서 음료업체들은 설비투자비 부담 없이 상품기획 및 마케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

송창우 팀장은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4백억원을 투자해 충북 광혜원에 건설해 온 연간 3억2천만본 규모의 페트병 무균 충전 설비가 지난 달 1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아셉틱(무균 충전) 라인의 도입을 통해 음료 충전 서비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은 물론, 현재의 페트용기 업계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 페트병 시장은 용기의 부피성 때문에 수출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송 팀장은 “이런 현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케팅 팀에서 새롭게 제안한 것이 바로 상온 무균 충전 설비의 도입인 만큼 잘 정착되면 현재의 페트병과 달리 완성된 음료를 수출할 수 있어 외국 음료기업까지도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효성의 무균 충전 설비는 무균 상태에서 페트병에 음료를 채워 넣기 때문에, 혼합차, 곡물음료, 우유함유 음료 등 산도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음료의 충전을 한층 더 안전하게 할 수 있

으며, 상온 상태에서 음료를 채워 넣기 때문에 음료 고유의 맛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효성은 자사의 무균 충전 설비 시스템에서 생산된 페트병 음료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OEM제품으로는 최초로 ‘Asepsys(아셉시스)’ 라는 무균 충전 페트병 시스템 브랜드를 도입했다.

“‘Asepsys(아셉시스)’ 제품의 본격 가동으로 음료 충전은 효성이 담당하고, 음료업체들은 영업력을 바탕으로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Win-Win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효성의 Asepsys(아셉시스)는 롯데칠성의 차 음료에 국내 최초로 적용되고 이후, 동서식품, 코카콜라 등 주요 음료업체들에 납품될 예정이다.

송창우 팀장은 “현재 이번 무균 충전 설비 가동으로 연간 5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웰빙 음료 시장에서 다양한 혼합차 및 곡물 음료 신제품이 출시가 기대되는 등 국내 음료시장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주)효성은 내용물 살균을 위해 85℃ 이상 고온에서 충전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내열병 형태의 용기를 비롯해 온장고용 페트병, 멀티 레이어 방식을 가진 맥주 페트병 등도 생산해 내고 있는 등 페트병 생산 이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발전해 왔다.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이 가장 큰 충청북도 광혜원에 공장이 있는 것도 주시해 볼 일이다.

지난 15년간 (주)효성 패키징 PU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효성의 무균 충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가동을 이끌고 있는 송창우 팀장. “도전과 혁신”을 통한 차별화를 통해 성공의 첫 걸음을 시작한 (주)효성과 송창우 팀장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